

“설맞이 만두·떡국 이웃에 나누고 활력도 찾아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종로마니아2008' 회원 어르신들이 충신어린이집 원아들과 설맞이 만두빚기를 하고 있다. 이날 만들어진 만두 2000여 개는 동대문 쪽방사무소에 전달됐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설맞이 소외이웃 위한 나눔마당

“자~ 이렇게 만두피에 물을 묻히고 속을 넣어서 만드는 거야. 옳지 않하네~”

보드라운 만두피를 왼손에 얹고 오른손으로는 다져놓은 만두소를 살짝 올린다. 분주하게 손을 돌려 만두피를 오므리면 맛깔스러운 만두의 모양새가 완성된다.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모여 아이들과 만두를 빚고 있다. 설날을 맞아 지역의 소외 이웃들에 나눠주기 위해서다.

아이들은 할머니·할아버지들이 가르쳐준 대로 잘 반죽이 된 만두피에 속을 올려놓고 꼭꼭 누른 뒤 터지지 않게 다듬었다.

어르신들은 길다란 만두, 둥그란 만두 등 서로 만두 모양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웃음꽃을 피웠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2월 6일 복지관 1층 식당에서 ‘호호만두 나눔마당’을 개최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복지관을 장기간 이용한 어르신들이 직접 만두를 빚어 지역 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다.

행사에는 정관 스님과 김영중 종로구청장,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45명과 함께 충신어린이집 어린이 7명이 자비나눔에 동참했다. 행사에 앞서 정관 스님은 “5년간 열심히 종

로노인복지관을 이용해주시어 감사하다. 앞으로 복지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길 바란다”며 “오늘 어르신들이 빚은 만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함께 나누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나, 종로마니아는 복지관을 즐겁게 이용합니다! 둘, 종로마니아는 나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셋, 종로마니아는 남을 돕고 삽니다! 우리가 바로 종로 마니아!”

어르신들은 만두를 빚기 전 구호를 외쳤다. 종로마니아의 정신을 담은 구호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종로노인복지관을 2008년부터 이용한 ‘종로마니아2008’ 회원이다. ‘종로마니아(Mania)’란 복지관 개관 5주년을 기념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초창기 회원 가입 후 5년 이상 꾸준히 열정을 갖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소속감과 긍지를 높여 지속적인 복지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관 스님은 “복지관은 종로마니아 어르신들이 자원봉사, 동아리활동 등 사회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생각을 함양하고 실천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년설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2008년 가입자를 대상

로 한 2기가 활동하고 있으며, 2007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1기는 저금통 모으기를 통해 약 370여만 원을 마련해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에 후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완성된 만두가 늘어나 한 쪽에는 박스가 차례차례 쌓였다.

이날 어르신들은 만두 2000여 개를 빚어 떡국 떡과 사골국, 곱감 등도 함께 준비해 저소

종로마니아·충신어린이집 참여 복지관 5년 이상 이용 어르신에 ‘종로마니아’로 소속감 높여 취미·봉사·나눔활동으로 행복찾아

속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동대문 쪽방사무소에 전달했다. 이 밖에 어르신들은 2012년 3차에 걸쳐 교육받았던 신노인상을 되짚어 보는 시간과 개별로 나누어 받았던 저금통을 노인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행사도 함께했다.

5년째 복지관을 이용하는 강금옥(68, 연건동) 씨는 “복지관 오기 전 우울증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생활이 우울한 상태였다. 무엇보다 복지관에서 어려운 사정을 알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좋은 친구들과 다양한 배움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다”며 “또한 많은 도움을 준 복지관에 대한 보답으로 도시락배달·식당·물리치료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남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만(76, 사직동)씨는 “일주일에 5일은 복지관을 이용한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장기, 서예, 스포츠댄스 등을 배우면서 재미도 찾았다. 친구들과 상부상조하면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았다”고 말했다.

고사리손으로 열심히 만두를 빚는 이근호(8·남) 어린이는 “만두를 처음 빚는데 고무찰흙으로 모양을 만드는 것 같아 재밌다”며 “내가 만든 만두를 혼자 사시는 할머니·할아버지께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관 스님은 “올해는 ‘유함’과 ‘화합’을 모토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1·3세대들이 함께 어울려 세대간 공감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한다. ‘호호만두 나눔마당’도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이 밖에 복지관은 우울증이 심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극, 노래동아리 등 문화활동을 통해 활력을 돋울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마다 복지관에 와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제2의 삶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이아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교계 복지관 설맞이 행사 ‘다채’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청원)는 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지하공영장에서 ‘서울 메트로와 함께하는 설맞이 나눔행사 희망의 온(溫) 효(孝) 실천’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서울메트로(본부장 이무영·사진 가운데)가 조계사 주지 도문스님(왼쪽)과 청원 스님(오른쪽)에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진화)은 2월 6일 설맞이 무료대중공연을 보시켰다. 이번 대중공연을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SK텔레콤(수유),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임직원들이 배식봉사 및 식당지원을 함께했다. 또한 복지관은 쌀 3600kg을 지역사회 14개 장애인단체 등에 지원했다.



시립 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영규)은 2월 7-8일 ‘설맞이 떡국 떡 나눔 행사’를 통해 소외이웃 120여 가정에 떡국 떡과 선물을 전달하고 새해인사를 드렸다. 7일에는 어르신 생신잔치 등이 진행됐으며 8일에는 칠산복지관 전 직원과 해피모 자원봉사단이 독거 어르신 30여 가정에 떡국 떡을 전달하고 세배를 드렸다.



부산광역시 서부노인보호조현문기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는 양정청소년수련관 3층에서 ‘설맞이 떡국 나눔행사’를 마련하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 중 150세대를 초청 떡국 및 생필품 전달식과 설맞이 공연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선)은 ‘새해맞이 사랑나눔’ 행사를 개최해 저소득가정,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정 등 300여명의 어려운 지역민을 초대해 노래자랑, 공연, 떡국 및 생필품 전달식과 저소득가정 희망장학금 마련을 위한 ‘사랑의 떡국’ 판매 행사를 개최했다.



저작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화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격하고 있다.

알기 쉬운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허락 면 행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 의 일 정 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